

Issue Comment

- ✓ ITC,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대상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소
- ✓ SK 이노베이션 미국 공급 차질 불가피. 남은 기한은 60 일
- ✓ LG 화학, 공급사 전환+배상금 가능성 호재에도 코나 risk 상존

LG 화학, 코나 불확실성 속 ITC 영업비밀 침해 판결 승소 호재

ITC, LG 화학 SK 이노베이션 영업비밀 침해 소송 승소

- ITC(국제무역위원회)는 LG 화학이 SK 이노베이션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최종 판결로 10 년간의 미국 내 수입 금지 명령을 결정
-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60 일 이후에 효력 발생하며 수입 금지 대상에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배터리 완제품/셀/모듈/팩 등이 모두 포함
- 다만, 미국 내 생산 목적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돼 포드(Ford)에는 4 년 / 폭스바겐에는 2 년의 공급 유예기간이 주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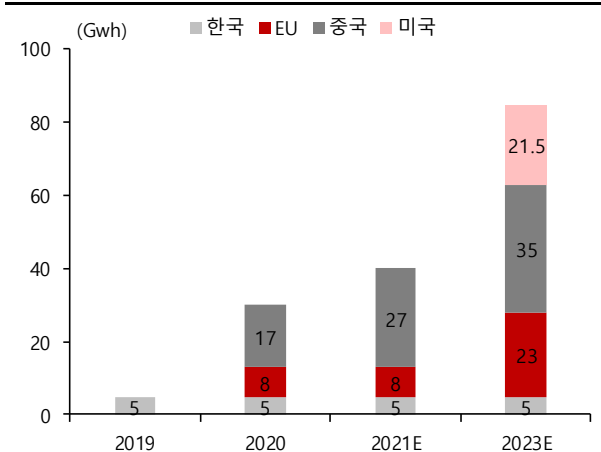
SK 이노베이션 미국 공급 차질 리스크와 남은 60 일의 기한

- SK 이노베이션은 현재까지 1,2 공장을 포함해 총 3 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투자 결정. 남은 건설 진행에도 영업 상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태
- 차량의 라이프타임이 6~7 년인 것을 감안, 포드 F-150 은 2 년 반, 폭스바겐 ID.4 는 6 개월 정도만 제품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수주금액은 약 20 조원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 수주 예상 잔고 70 조원(550Gwh)의 28%에 달하는 수준
- ITC 특허침해 소송, PTAB 소송은 올해 하반기까지 지속될 전망. 또한, 연방순회합소법원(CAFC)에 항소 기간에도 수입 금지 효력은 유효
- 60 일 이내의 대통령 거부권 및 양사 협상이 효력 중지의 해결안. 협상 시 2 조원 이상의 배상금 예상돼 SK 이노베이션 향후 추가 투자여력 훼손

LG 화학 승소, 공급사 전환 가능성 + 배상금 호재에도 안고 가야할 코나 리콜 불확실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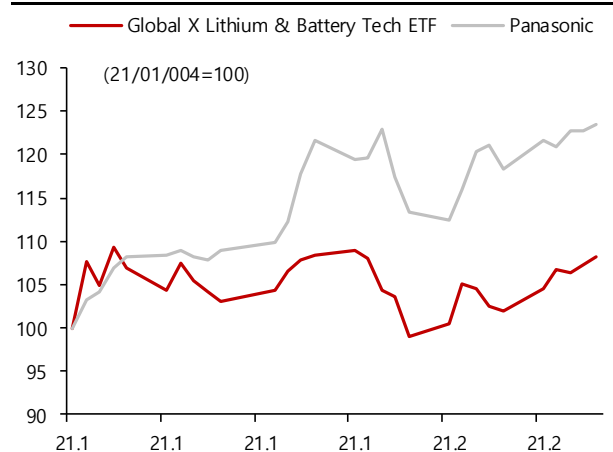
- 이번 조치로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 배터리 업체로 공급 전환 시 LG 화학, CATL, 삼성 SDI 등 주요 Top Tier 배터리 업체들의 수혜 예상
- 다만, 2 월 10 일 ITC 결과에도 지난 주 Panasonic 및 글로벌 배터리 관련 ETF의 주가 변동성은 1% 아래로 제한. 구체적인 입찰 발표에 주목
- LG 화학은 이번 ITC 판결은 미국 M/S 확장 기회 및 배상금 확보 시나리오 모두 긍정적. 다만, 최근 코나 화재의 리콜 불확실성은 주가에 부담

SK 이노베이션 증설 계획 2023 년에 21.5Gwh 미국 생산



자료: SK 이노베이션, SK 증권

배터리 관련 ETF 및 파나소닉 주가 흐름: 큰 변동은 제한



자료: Bloomberg SK 증권

문제의 발단과 현재

과거 2017년 시작되었던 전직 직원에 대한 가차분 소송이 발단이 시작이다. 이는 2019년 LG 화학이 가차분 소송에 승소가 결정됐다. 이후 같은 해 LG 화학에서 나간 인력이 영업비밀을 SK 이노베이션에 유출했다는 '영업비밀 침해 1 건을 미국 ITC(국제무역위원회)와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동시 제기한다, 2019년 9월에는 인력유출 관련 영업비밀침해 소송이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 건으로 확장된다.

그리고 2020년 2월 ITC에서 SK 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예비결정)을 내린다. SK 이노베이션은 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고 최종판결은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2월10일로 3차례 연기된 이후 예비결정을 인용해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 화학의 승기를 들어줬다. 이로써 SK 이노베이션은 이번 결정에서 10년간 미국 내 수입금지 명령이 내려졌다. 이는 배터리 생산에 필요한 원재료와 배터리 완제품/셀/모듈/팩 등을 모두 포함한다. 다만, 미국 내 생산 목적 배터리와 부품 수입은 한시적으로 허용돼, 포드(Ford)에는 4년 / 폭스바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이제부터는 전개의 가능성과 산업 전반에 미칠 중요해졌다. 또한 아직 소송은 끝나지 않았다. 동시에 진행됐던 ITC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SK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7월 19일, SK→LG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예정돼 있다. PTAB '특허 무효' 소송은 SK 이노베이션의 신청 8건은 올해 1월부로 모두 각하, LG 화학이 신청한 1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은 LG 화학이 소송을 제기하면 된다.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특허 관련 승쟁 타임라인

연도	날짜	내용
2017	Dec-17	LG 화학, 대전지방법원에 SK 이노베이션 전직직원 5명 대상 전직금지 가차분 소송 제기
2019	Jan-19	LG 화학, 대법원에서 '전직금지 가차분 소송' 승소(2년 전직금지)
	Apr-19	LG 화학, ITC와 연방법원(델라웨어 지방법원)에 SK 이노베이션 인력유출 관련 영업비밀 침해소송(1건)을 제기
	May-19	LG 화학,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방법경찰청에 SK 이노베이션 및 인사담당 직원 등 고소
	Jun-19	SK 이노베이션, 서울중앙지법에 영업비밀 침해 없었다는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 및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
	Sep-19	SK 이노베이션, ITC, 연방법원에 LG 화학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2개) < GM 과 아우디, 재규어 전기차 배터리 특허 관련 2개(994 파우치구조 관련 / 접착패드 관련)> CEO 회동 결렬 / 경찰, SK 이노베이션 압수수색 LG 화학, ITC와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에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관련 특허침해 소송(5개) <SRS® 분리막 코팅 미국특허 3개 양극재 미국특허 2개>
	Oct-19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 이노베이션 중요 문서 제출 누락' 포렌식 명령 SK 이노베이션, 서울지방법에 LG 화학이 과거 합의 파기했다는 내용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추가 소송
	Feb-20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SK 이노베이션에 조기패소 판결 (예비 결정)
	Mar-20	LG 화학, PTAB 에 SK 이노베이션 특허무효심판(IPR) 1건 신청
2020	Apr-20	ITC, SK 이노베이션의 이의 제기로 재검토 결정
	(5~7)-20	SK 이노베이션 PTAB 에 LG 화학 IPR 총 8건 신청
	Aug-20	서울중앙지법, SK 이노베이션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SK 이노베이션 1심 패소
	Sep-20	ITC, 영업비밀 침해 소송 최종 판결 10/05 -> 10/26 로 연기 발표 PTAB, LG 화학 신청 IPR 1건 유효성 심사 개시
	Oct-20	ITC, 최종판결 12/10 일로 재연기 발표
	Nov-20	PTAB, SK 이노베이션 신청 IPR 8건 중 6건 각하
	Dec-20	ITC 최종판결 10월5일→10월26일→12월10일→2월10일로 연기
	Jan-21	PTAB, SK 이노베이션 신청 IPR 나머지 두건 모두 각하(총 8건 각하)
2021	Feb-21	ITC 최종 판결 발표

자료: 각종언론, SK 증권

SK 이노베이션 미국 공급 차질과 배터리 PEER 수혜

1) SK 이노베이션 조지아 공장 및 미국 공급 차질

SK 이노베이션은 조지아주 잭슨군에 9.8GWh 제1 공장을 짓고 있었으며(19.1Q 착공 → '22.1Q 양산 예정), 1 조8천억원을 추가 투자해 11.7GWh 제2 공장을 건설한다는 계획(20.3Q 착공 → '23. 1Q 양산) 도 발표한바 있다. 현재까지 1,2 공장을 포함해 총 3 조원에 달하는 금액 이 투자 결정되었다. 9.8Gwh 규모의 제1 공장은 현재 상반기 시운전을 앞둔 상태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다. 영업 상 불확실성 이 커진 상태이다.

현재 미국 수주금액은 약 20 조원으로 알려져 있어, 전체 수주 예상 잔고 70 조원(550Gwh)의 28%에 달하는 수준이다. 각각 포드 4 년, 폭스바 겐 2 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벌였으나 이후의 판매 차질 및 지난 공사 투자금액에 대한 기회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그리고 포드의 F-150 은 2023 년 출시를 앞두고 있으며 폭스바겐의 MEB ID.4 는 2022 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차량의 라이프타임이 6~7 년인 것을 감안하면 유예기간 이후의 공급을 진행하지 못한다는 측면도 있다. F-150 은 2 년 반, ID.4 는 6 개월 정도만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미국 시장은 SK 이노 베이션이 중국 증설 다음으로 PIE 를 키워가는 시장으로 수입금지의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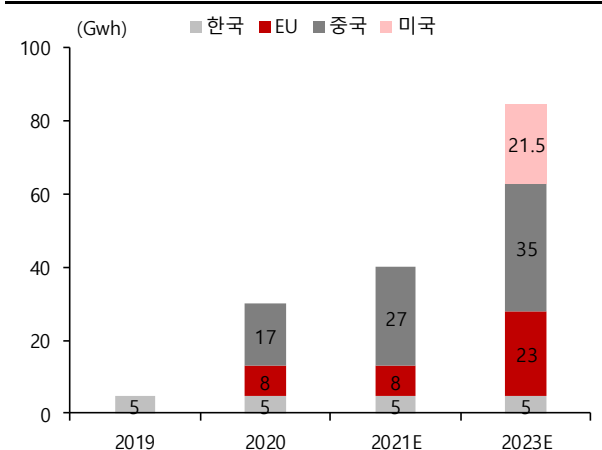
2) 배터리 PEER 수혜 효과

현재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사용량 기준 CATL(24%), LG 에너지솔루션(23%), 파나소닉(19%), BYD(7%), 삼성 SDI(6%), SK 이노베이션 (5%)로 파악된다. SK 이노베이션의 경우 작년 1.7% 수준에서 5% 수준까지 상승되었다. 이번 조치로 포드와 폭스바겐이 타 업체 배터리로 전환 시 LG 화학, CATL, 삼성 SDI 등 주요 Top Tier 업체들의 수혜 예상된다. 제공된 유예 기간 동안 포드와 폭스바겐은 신규 배터리 업체와의 테스트 및 협상 과정이 필요한 만큼 장기적인 관점에서 변화 기대한다. 별다른 협상 부재 시 공급 사전환 입찰 소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글로벌 대형 배터리주들의 움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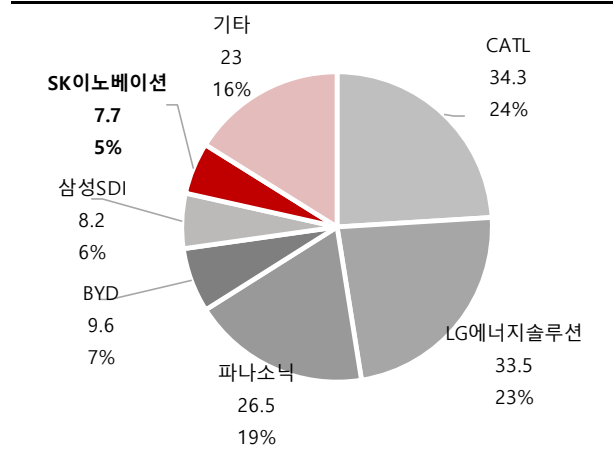
현지시간 2 월 10 일 ITC 결과에도 지난 주 Panasonic 및 글로벌 배터리 관련 ETF 의 주가 변동성은 다소 제한되었다. Global X Lithium & Battery Tech ETF 의 경우 2/11 +0.9%, 2/12 +0.7%를 기록했으며, 일본의 주요 배터리 기업인 Panasonic 의 경우도 2/11 일 연휴 이후 +0.5%의 약보합을 보이며 마감했다. 국내 대형주인 SK 이노베이션과 LG 화학의 주가 흐름에 추후 변동성 확대될 여지 있으나 타 배터리 업체들 은 구체적인 수혜 소식 이전까지는 주가 반영은 제한 되리라 판단한다. LG 화학은 이번 ITC 판결은 미국 M/S 확장 기회 및 배상금 확보 시나리오 모두 긍정적이다. 다만, 최근 코나 화재의 리콜 불확실성은 주가에 부담일 전망이다.

SK 이노베이션 증설 계획: 2023 년에 21.5Gwh 미국 생산



자료: SK 이노베이션, SK 증권

2020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



자료: SNE 리서치, SK 증권
주: 기업명, 사용량, 점유율 기준

앞으로의 전개 가능성

앞으로의 전개는 크게 정리하자면 ① 현재의 판결의 효력 제한 및 협상 그리고 ② 진행 중인 소송의 행방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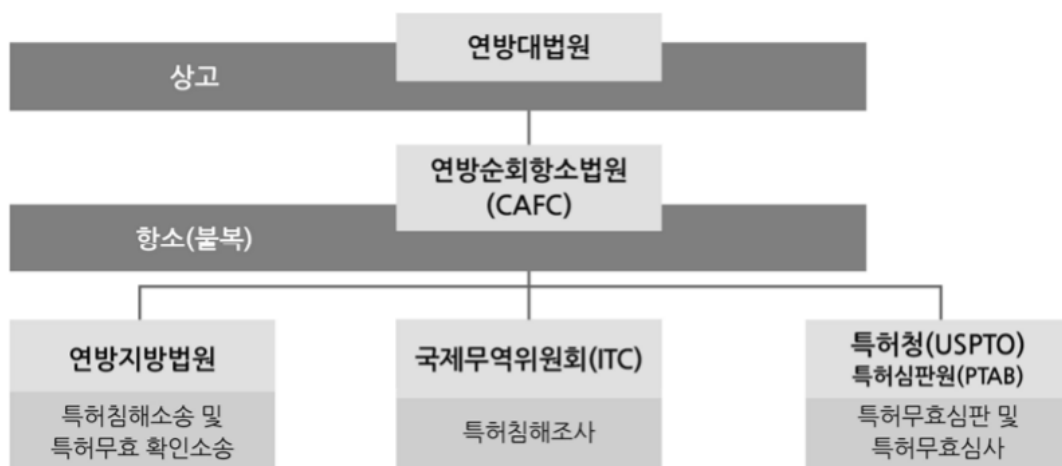
첫 번째는 다시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현재 ITC 결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과 양사간의 협상 여부다. ITC의 결과가 나오면 60일 이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그 사이에 앞선 두가지 경우가 발생하면 효력을 중지시킬 수는 있다. 1) 일단, 미국 대통령이 60일 이내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과거 2013년 ITC가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애플 제품 미국 수입금지 최종판결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미국 소비자 권익 침해로 사유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였고 의미가 효력은 중지되었다. SK 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주 배터리 공장은 2600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위 사례처럼 일자리 및 경제 피해 등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가능성은 2) 두 기업간의 협상 가능성이다. 협상 타결 시 수입금지 제한 조치의 효력을 중지시킬 수 있다. SK 이노베이션은 협상 금액으로 수 천억원, LG 화학은 2.8조원 가량을 제시한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최소 2조원 가량의 배상금을 요구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올해 1~2조원 규모의 SK 루브리컨츠도 일부 지분 매각 계획 등에 유동성 문제는 제한될 것으로 판단하나 4분기 기준 부채비율이 149%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코로나19 악재로 인한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배터리에 대한 추가 투자 여력이 다소 훼손되었다는 평가이다.

두 번째는 진행 중인 소송의 행방이다. 이번 LG 화학과 SK 이노베이션 간의 분쟁은 영업비밀 침해로 시작했지만, 배터리 특허 침해 소송/배터리 특허 무효 소송 등으로 확장됐다. 영업비밀 침해는 판결이 났지만 ITC에 제소한 ITC 배터리 관련 특허 침해 소송에 대해서는 LG→SK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7월 19일, SK→LG 특허침해 소송은 올해 11월 30일에 ITC 최종 결정이 예정돼 있다.

PTAB(특허청 산하 심판원) 특허 무효 소송은 SK 이노베이션의 신청 8건은 올해 1월부로 모두 각하, LG 화학이 신청한 1건이 아직 진행 중이다. 9/30 조사가 개시되어 올해 하반기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델라웨어 지방법원 소송은 지금은 중지된 상태이나 LG 화학이 소송을 재기하면 된다. 일반적으로 연방지방법원은 PTAB의 결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개연성은 SK 이노베이션이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 항소를 하는 경우이다. 다만, 항소하는 기간에도 수입 금지 효력은 유효하며 양사간의 소송이 길어지는 효과를 낳는다.

특허쟁송 구조 관련 기관 및 구조



자료: 사법정책연구원, SK 증권

-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 투자판단 3단계 (6개월 기준) 15%이상 → 매수 / -15%~15% → 중립 / -15%미만 → 매도